



아트 & 리빙 자수 공예



한 땀 한 땀~ 실과 바늘로 그리는 나만의 그림



가방·쿠션서 브로치까지
생활용품·액세서리 접목
2~3년전부터 유럽자수 인기

천은 주로 광목 사용하고
실 길이 30cm 넘지 않아야



주위에 수를 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알록 달록 실이 달린 바늘을 붙잡고 원단을 통과시키면 어느새가 예쁜 그림을 수놓은 앞치마와 가방이 탄생한다. 공예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프랑스 자수' 공예다.

자수는 크게 동양자수와 유럽자수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프랑스에서 염색업이나 손으로 작업하는 기계공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프랑스풍 자수가 다른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프랑스 자수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원래는 유럽자수지만 프랑스인들이 전파시킨게 더 각광을 받아서 프랑스 자수라는 명칭이 별도로 붙은 거예요. 큰 틀로 보면 유럽자수죠.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의 자수가 비슷한데, 이를 동양자수라고 하지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공예방 '가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정민(38)씨는 공예인들이 모여 만든 '예쁜손공예협동조합' 대표이기도 하다.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마을내 취약계층 여성들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바느질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동양자수, 유럽자수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실과 바늘을 이용해 원단에 그림을 그려 넣는 기법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수는 'X'자 모양으로 수를 놓기 때문에 십자수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크로스 스티치라고 부르는 식이다.

동양자수와 유럽자수를 구분하는 것은 사



예쁜손공예협동조합 안정민 대표가 광목 원단에 꽃그림을 수놓고 있다.

용하는 실과 원단이다. 유럽에서는 면실을 위주로 사용하는데 반해 동양에서는 견사(실크실)를 사용한다. 견사는 면사에 비해 더 가느다랗고 광택이 난다. 한복에 놓인 자수가 광택이 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이때문이다.

면사로 수를 놓는 유럽자수는 일반적으로 면이나 광목 원단을 이용한다. 수를 놓는 그림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유럽 자수는 '크래놀린 레이디'라고 해서 큼직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을 자주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화에 나오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나 나비 문양을 주로 그려낸다.

"공예도 흐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공예 강국인 일본을 따라가는 추세예요. 일본에서 십자수에 이어 5~6년 전부터 자수가 유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십자수 유행이 지나고 끊겼다가 2~3년 전부터 자수를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자수는 유럽자수다. 단순하게 천에 자수를 새겨넣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제품들과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치마나 가방, 쿠션, 파우치, 테이블 러너, 화장지 케이스 등은 물론 브로치나 손거울 등 작은 액세서리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

자수 공예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종이와 연필 대신 바늘로 천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쉽다. 모든 그림이 도안이 될 수 있다. 사계절 풍경이나 들꽃, 야생화, 귀여운 애완동물 그림 뿐 아니라 예쁜 라인 스티치나 포인트 마크 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주재료는 천과 실, 바늘. 천은 빨아 쓸수록 밝고 환해지는 광목을 주로 사용한다. 자수 실은 종류가 많은데, 종류에 따라 가닥의 수도 다르다. 대표적인 자수실은 'DMC 25번사'로 여섯 가닥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두 가닥을 뽑아 섬세하고 정확하게 수를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외에 천을 팽팽하게 펼 때 사용하는 자수를, 원단에 직접 도안을 그릴 때 사용하는 수성 초크펜, 시침핀, 가위 등이면 적당하다.

프랑스 자수의 바느질 기법은 대략 200여 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러닝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 체인 스티치나 세틴 스티치, 아우트라인 스티치, 프렌치 노트 스티치, 레이디데이 스티치 등이 쓰인다. 러닝 스티치(Running stitch)는 도안의 선을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땀씩 간격을 주며 수를 놓는 기본 기법이다.

바늘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넣고 빼내야 예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Straight stitch)는 한 땀으로 스티치가 이뤄진다. 한 땀씩 떨어져 수놓거나 방사형으로 수놓기도 한다.

수를 놓을 때 주의할 점은 실의 길이를 30cm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이 너무 길면 꼬여서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거나 수를 놓을 때 방해가 된다. 또 실을 너무 세게 당기면 원단에 주름이 생기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수놓기가 끝나면 원단을 다려주는데, 뒤집어서 자수의 뒷면을 다려야 원단의 구김은 퍼지면서 자수의 볼륨감이 유지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명창에게 직접 배우는 남도소리

전남문예재단 11월까지 매주 무료 강좌

판소리 명창에게 직접 남도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6일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2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남도소리홀리터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동동동 울려라, 남도소리'를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6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으며, 명창들이 강사로 나서 판소리와 남도민요에 대한 국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진행한다. 소리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특강도 준비됐다.

특강에는 박금희(전남무형문화재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추정남(전남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보유자), 방성춘(광주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동초제 예능보유자), 안애란(전무형문화재 판소리동면제 춘향가 예능보유자)가 참여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후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기부 공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좌는 총 30차례 진행되며, 매회 50명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11일까지 전남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981-0280. /김미은기자 mekim@

故 신영복 선생 글귀 캘리그래피展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5월 6일까지



'길은 누가 여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면 뒤에 생기는 것.' '상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는 세상에 없다.'

고(故) 신영복(1941~2016) 선생이 남긴 글귀를 함께 나누는 캘리그래피 전시 열린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오는 5월 6일까지 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원당숲 어울마루플랫폼에서 '고 신영복 선생 말씀-아침처럼 새봄처럼'을 연다.

그가 남긴 글 중 이웃, 공동체, 공존에

대한 글을 작가 정미라 씨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제작한 캘리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캘리작품 15점은 6만~10만 원에 판매된다.

이번 전시는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품앗이 후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품앗이 후원'은 전시를 위해 누군가 후원을 하고 작품 판매에 따른 일부 수익을 후원자가 되돌려 받는 기법이다. 문의 010-8382-6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박윤모 감독 재위촉



광주시는 6일 광주시립극단 현 예술감독 박윤모(62)씨를 재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 기간은 향후 2년이다.

박윤모 예술감독은 24년 만에 재창단한 시립극단의 초대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후 '광주1백년사' 연극 시리즈, 수시 공연 '전우치', 뮤지컬 '빛깔 아리랑' 등을 시립극단의 안착을 이끈 공을 인정받

았다. 또 박감독은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스티벌과 광주세게이리랑축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시립극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ttp://art.kjmedia.co.kr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0 호남예술제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 부문
2016년 4월 6일(수) ~ 4월 12일(화)

미술·작문 부문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장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